中國語文學 第61輯(2012. 12) 31-57쪽

唐代 梅花詩에 나타난 梅花의 상징성*

禹在鎬** · 權寧海***

<目 次>

Ⅰ. 序 論
Ⅱ. 唐代까지의 梅花詩
Ⅲ. 唐代 梅花의 象徵性
1. 봄의 전령사
2. 氷肌玉骨의 미녀
3. 그리움의 표상
4. 自我의 투영
Ⅳ. 結 論

Ⅰ. 序 論

역대로 중국의 문인들은 '梅花'가 문인의 氣節을 상징한다고 믿었고, 君子의 氣節을 상징하는 네 가지 사물(梅·蘭·菊·竹) 중에서 매화가 으뜸이라고 여겼다. 梅花는 중국의 문인뿐만 아니라 韓國·日本 등 동아시아 문인들이 가장 애호한 꽃이었다. 동아시아 문인들, 특히 중국 古代의 문인들은 수많은 꽃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왜 유독 梅花를 시의 소재로 많이 삼았을까? 그것은 아마도 梅花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상징적 의미를 고대의 문인들이 몹시도 애호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추위를 무릅쓰고 孟冬에 피어나는 매화의 모습은 시인들에게 강열한 인상을 주었던 것이 틀림없다. 南北朝時代에 겨우 몇몇 시인에 의해 노래 불려지던 매화는 唐代에 이르러 시의 소재로 보다 널리 확산되었으며, 宋

* 이 연구는 2011학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 嶺南大學校 中國言語文化學部 敎授
*** 嶺南大學校 中語中文學科大學院 碩士課程

www.kci.go.kr

代 이후에는 文人氣質을 상징하는 꽃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문인들이 애호한 梅花에는 어떠한 상징적 의미가 있으며,[1] 매화의 이러한 상징적 의미는 언제부터 있게 되었을까? 본고에서는 매화의 상징적 의미가 대체로 唐代에는 이미 형성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唐代 梅花詩에 나타난 매화의 상징성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Ⅱ. 唐代까지의 梅花詩

흔히 梅花詩라고 하면, 梅妻鶴子의 故事로 유명한 宋代의 隱士 林逋나 ≪范村梅譜≫로 유명한 宋代의 范成大 같은 시인을 떠올리게 된다.[2] 이는 宋代의 시인들이 梅花를 소재로 하여 지은 시가 많고, 또 이들 문인 중에 蘇軾, 陸游 등 저명한 시인들이 많았기 때문인 듯하다.[3] 그러나 실은 梅

1) 매화의 상징적 의미에 대해서는 程杰의 <梅花象徵生成的三大原因(上)>(≪文學研究≫, 2001), 이해원의 <歷代 詠梅詩詞에 나타난 梅花의 象徵意味硏究>(≪中國學論叢≫, 2002), 이선옥의 <梅花의 象徵과 梅花圖>(≪호남문화연구≫, 제40집, 2007) 등에 역대 매화의 상징에 대한 포괄적인 정리가 되어 있으나, 당대 매화시의 상징성만을 다룬 것은 아니다.

2) ≪宋史≫(≪二十五史≫ 全12冊, 上海古籍出版社, 1986) 卷457, 列傳第216, <林逋傳>에는 梅妻鶴子의 故事가 수록되어 있지 않으나, <山園小梅>라는 梅花詩가 세간의 명망을 얻게 된 이래 文人들에 의해 梅妻鶴子의 故事가 윤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范成大는 ≪范村梅譜≫에서 말하기를, '나는 석호 옥설파에 이미 매화 수 백 그루를 가지고 있었는데, 근년에 집의 남쪽 왕씨네로부터 70여 채의 집을 사들여 모두 허물어버리고 범촌을 조성하였다. 그 땅 삼분의 일에 매화를 심었다.(余於石湖玉雪坡, 旣有梅數百本. 比年又於舍南買王氏就舍七十楹, 盡拆除之, 治爲范村, 以其地三分之一與梅)'라고 하였으니, 그가 얼마나 매화를 혹애하였는지 알 수 있다. 이처럼 宋代의 詩人들과 연관된 매화이야기가 많이 전해지는 까닭에 後代에 이르러 梅花詩하면 宋詩를 흔히 연상하게 되었다. 송대의 매화시 창작 경향에 대해서는 盧垠靜의 <南宋四大家 詠物詩硏究>(≪中國語文學論集≫ 第39號, 2006) 224-226쪽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3) 盧垠靜, 위의 논문, 224쪽에는 榮斌의 <一代詠梅成正聲-論宋代詠梅詩詞創作熱>(≪東岳論叢≫ 第24卷 第1期, 2003)을 인용하여 송대 주요 작가의 梅花詩詞 창작 작품 수를 예시하고 있다. 陸游가 가장 많은 159수의 매화시를 남기고 있는 것을 위시하여, 송대의 유명 작가 대다수가 많은 수의 매화시를 남기

www.kci.go.kr

花詩가 본격적으로 창작된 것은 唐代이며, 그 시작은 南北朝時代로 소급할 수 있다. 漢代 이후 관상용 매화가 재배되면서 시인들은 매화의 심미적 특성과 그 문학적 상징성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何遜 등 南北朝詩人들이 지은 梅花詩에는 꽃의 아름다움이 묘사되면서 상징적 의미가 담겨지기 시작하였으니, 後代 梅花詩의 源流로 보아도 전혀 손색이 없는 작품들이다. 南北朝時期의 梅花詩는 비록 그 수량이 제한적이기는 하나 梅花詩라는 장르를 발생시켰다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겠다.[4]

南北朝時期의 매화시를 發芽期라고 한다면 唐代의 梅花詩는 生長 發展期로 볼 수 있을 것이다. 唐代에는 대략 70여 詩人이 90여수의 梅花詩를 남기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全唐詩≫에서 시제에 '梅' 또는 '梅花'라는 어휘를 사용하고 있는 詩 약 90여수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아,[5] 이들 시

고 있다.

4) 南北朝時期 宋・齊・梁・陳・隋代에 창작된 매화시를 열거하면 鮑照의 <梅花落>, 謝朓의 <詠落梅>, 何遜의 <早梅>, 蘇子卿의 <梅花落>, 吳均의 <梅花>・<梅花落>, 王筠의 <和孔中丞雪裏梅花>, 鮑泉의 <詠梅花>, 謝燮의 <早梅>, 簡文帝 蕭綱의 <春日看梅>・<雪裏覓梅花>, 元帝 蕭繹의 <詠梅>, 庾肩吾의 <同蕭左丞詠摘梅花>, 庾信의 <梅花>, 徐陵의 <梅花落>, 陰鏗의 <雪裏梅花>, 江總의 <梅花落>四首, 張正見의 <梅花落>・<賦得梅林輕應教>, 後主 陳叔寶의 <梅花落 二首>, 侯夫人의 <春日看梅 二首> 등이 있다.

5) 本考에서는 ≪全唐詩≫(上・下, 宏業書局, 1982)에 수록된 詩 중에서 詩題에 '梅' 또는 '梅花'라는 어휘가 사용된 詩 90여 수를 선별하여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자료적 가치도 있으므로 이들 시를 모두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盧照鄰의 <梅花落>, 楊炯의 <梅花落>, 李嶠의 <梅>, 張九齡의 <和王司馬折梅寄京邑昆弟><庭梅咏>, 沈佺期의 <梅花落>, 劉方平의 <梅花落>, 岑參의 <江梅遇梅花之作>, 孟郊의 <弔江南老家人春梅>, 戎昱의 <早梅>, 張說의 <正朝摘梅>, 王適의 <江濱梅>, 盧僎의 <十月梅花書贈>, 孫逖의 <和常州崔使君詠後庭梅 二首>, 王維의 <雜詩 其二>, 孟浩然의 <早梅>・<張郎中梅園作>, 李白의 <送友人游梅湖>, 張謂의 <官舍早梅>・<早梅>, 杜甫의 <和裴迪登蜀州東亭送客逢早梅相憶見寄>・<江梅>, 羊士諤의 <東渡早梅一樹, 歲華如雪, 酣賞成詠>, 庾敬休의 <春雪映早梅>, 杜牧의 <梅>, 韋蟾의 <梅>, 唐彦謙의 <梅>, 熊皎의 <早梅>, 鄭述誠의 <華林園早梅>, 劉言史의 <竹里梅>, 王建의 <塞上梅>, 李愬의 <梅花吟>, 韓愈의 <春雪間早梅>, 柳公勸의 <梅谿>, 李紳의 <早梅橋>, 顧況의 <梅灣>, 白居易의 <和薛秀才尋梅花同飮見贈>・<憶杭州梅花, 因敘舊游, 寄蕭協律>・<新栽梅>・<與諸客携酒尋去年梅花有感>, 李德裕의 <憶寒梅>, 朱慶餘의 <早梅>,

www.kci.go.kr

를 중심으로 唐詩에 형성된 매화의 상징적 의미를 몇 개의 소절로 나누어 분석해보고자 한다.[6]

Ⅲ. 唐代 梅花의 象徵性

齊梁時代에 싹을 피우기 시작했던 梅花詩는 唐詩의 발전과 더불어 그 形式과 內容에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 중 한 가지는 梅花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 요소를 운용하여 작가의 사상을 寄托하는 작품도 점차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唐代의 시인들이 매화라는 詩的 素材에 주목하게 된 것은 매화가 시인의 心像을 표현하기에 매우 적합한 꽃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인 듯하다. 齊梁時代의 시인들은 주로 매화의 외형적 미감에만 주목하였으나, 唐代를 거치면서 詩人들은 점차 梅花의 상징과 시인의 주관적 세계인식을 결합시키는 방법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다. 이점

錢起의 <山路見梅, 感而有作>, 張籍의 <梅溪>, 劉禹錫의 <詠庭梅寄人>, 柳宗元의 <早梅>, 元稹의 <賦得春雪映早梅>, 李商隱의 <憶梅>·<十一月中旬至扶風界見梅花>·<酬崔八早梅有贈兼示之作>, 崔櫓의 <岸梅>, 殷堯藩의 <友人山中梅花>, 王初의 <梅花 二首>·<春日詠梅花 二首>, 許渾의 <聞薛先輩陪大夫看早梅因寄>, 李羣玉의 <山驛梅花>·<人日梅花病中作>, 溫庭皓의 <梅>, 崔道融의 <梅>·<梅花>·<對早梅寄友人 二首>, 皮日休의 <行次野梅>, 陸龜蒙의 <奉和襲美行次野梅次韻>, 來鵬(來鵠)의 <梅花>, 方干의 <胡中丞早梅>, 羅鄴의 <梅花>·<早梅>, 羅隱의 <梅>·<梅花>·<人日新安道中見梅花>, 鄭谷의 <江梅>·<梅>·<折得梅>, 韓握의 <梅花>·<湖南梅花一冬再發偶題于花援>·<早玩雪梅有懷親屬>, 陸希聲의 <梅花塢>, 王貞白의 <春日詠梅花>, 徐夤의 <梅花>, 熊皦의 <早梅>, 李建勛의 <醉中詠梅花>·<梅花寄所親>, 齊己의 <早梅>, 李煜의 <梅花>, 李中의 <梅花>, 劉元載 妻의 <早梅>, 無名釋의 <古梅>, 皎然의 <冬日梅溪送裴方舟宣州>, 劉淑柔의 <早梅>, 和凝.孫光憲의 <望梅花>, 李九齡의 <寒梅詞>, 吳融의 <旅館梅花> 등이다.

6) 위에서 열거한 시 이외에, 비록 詩題에는 梅 또는 梅花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시의 원문에 梅 또는 梅花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시의 내용상 梅花가 주요 소재로 쓰이는 시들도 있다. 예를 들면 王維의 <雜詩 三首>는 시제는 비록 <雜詩>이지만, 둘째 수는 대표적인 매화시로 꼽히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시도 연구범주에 포함시켜 분석하고자 한다.

www.kci.go.kr

에 유의하면서 본 장에서는 당대 매화시에 나타난 매화의 상징적 의미를 봄의 전령사, 氷肌玉骨의 美女, 그리움의 표상, 自我의 투영 등 네 소절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1. 봄의 전령사

대자연의 변화, 곧 춘하추동 사계절의 변화는 고대 시인의 詩心을 자극하였다. 詠花詩의 창작은 시인의 계절변화에 대한 감정적 인식과 깊은 연관 관계를 가진다. 대개의 경우는 百花가 활짝 피어나는 봄이 詠花詩의 창작배경이 되어, 春木과 春花의 생명력이 詠花詩의 소재와 주제를 이루지만, 梅花詩의 경우는 봄날의 초목과는 그 성격을 약간 달리한다. 梅花가 늦겨울에서 초봄에 걸쳐 개화하기 때문에 자연 온갖 꽃들이 활짝 피어나는 봄철과는 그 성격과 상징이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唐代에 특히 梅花가 시인들에게 계절을 알리는 상징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는 名宰相으로 유명한 張九齡과 관계가 있는 듯하다. 장구령은 唐 玄宗 開元 4年(716年)에 江西省과 廣東省 사이의 교통을 가로 막고 있는 大庾嶺에 길을 열었는데, 그 大庾嶺 양쪽에 매화나무를 심어 오가는 길손들로 하여금 客愁를 달래게 했고, 이로부터 大庾嶺하면 梅花를 연상할 정도로 저명한 名所가 되었다.[7] 李嶠가 <일찍 핀 매화(早梅)>에서 “대유령엔 추위 가시고 있는데, 남쪽 매화가지 홀로 벌써 향기롭네.(大庾斂寒光, 南枝獨早芳.)”라고 노래하거나,[8] 宋之問이 <대유령 북쪽 역참에 제함(題大庾嶺北驛)>(卷52, 640쪽)이란 시에서 “내일 아침 고향을 바라보는 곳에서, 언덕 위의 매화를 보겠구나.(明朝望鄉處, 應見隴頭梅.)”라고 읊조리는 등, 大庾嶺의 梅花가 이미 봄을 알리는 상징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

7) 張九齡, <開鑿大庾嶺路序>, ≪曲江集≫ 卷17, 文淵閣欽定四庫全書 電子版, 上海人民出版社.

8) ≪全唐詩≫ 卷60, 臺灣宏業書局, 1982, 718쪽(이하 ≪全唐詩≫의 권수와 쪽수는 詩題 뒤에 표시함).

www.kci.go.kr

다. 이 때문에 大庾嶺 남쪽에서부터 봄이 온다는 의미는 추위를 이겨내고 봄보다 먼저 꽃을 피우는 梅花의 特性을 지적한 것이기도 하다.

먼저 梅花를 보고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詩人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王適의 五言絶句 <물가에 핀 매화(江濱梅)>(卷94, 1016쪽)를 한 수 보기로 한다.

忽見寒梅樹, 홀연 겨울 매화나무를 보았더니,
開花漢水濱. 한수의 물가에서 꽃이 활짝 피었구나.
不知春色早, 봄빛이 빨리 온 줄은 모르고,
疑是弄珠人. 弄珠人의 구슬인 줄 알았네.

겨울에 핀 梅花를 보게 된 시인의 경이로운 감정을 그리고 있다. 시인은 무심하게 漢水의 강변에서 강을 응시하다가 마치 보배같이 아름다운 매화꽃을 발견했다. 弄珠人이란 江妃라는 神女를 지칭하는 것으로,[9] 매서운 추위 속에서 꽃을 피우는 梅花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배 또는 神女에 비유한 표현이다. 사실 모든 식물이 추위에 떨면서 자취를 감춘 한 겨울에 활짝 핀 梅花 꽃망울을 보게 되는 것은 詩人의 마음을 충분히 감동시킬 만한 사건이다. 겨울 매화가 봄의 도래를 알려주는 전령사라는 이미지가 분명히 드러난다.

다른 꽃에 비해 일찍 꽃이 피어 봄의 도래를 알려주는 매화의 특성을 읊고 있는 <일찍 핀 매화(早梅)>는 詠梅詩에서 가장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제목이다. “정원의 때 이른 매화, 올해도 추위 무릅쓰고 피어났구나.(園中有早梅, 年例犯寒開.)”라고 읊은 孟浩然의 <早梅>를 위시하여, 시제에

9) ≪文選≫ 卷4, 張衡, <南都賦>, ≪문선역주≫ 전10권, 소명출판, 2010, 295쪽. 註에 弄珠人은 계란만한 구슬을 차고 있었다는 전설 속의 神女로, 매화를 가리키는 시어이다. 周代의 鄭交甫가 楚나라 漢皐의 누대 아래에서 두 江妃를 만났는데, 달걀만한 옥구슬을 허리에 차고 있었다. 정교보가 차고 있는 옥구슬을 달라고 청하자 옥구슬을 풀어 주고 떠났는데, 잠시 뒤에 보니 옥구슬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고, 두 神女 역시 자취를 감추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한다.

www.kci.go.kr

‘早梅’라는 어휘를 사용하고 있는 시가 19수나 된다. 唐詩 중에 <早梅>라는 제목의 佳作이 적지 않은데, 이들 시 대부분은 봄이 도래했음을 노래하고 있다. 매화에 촉발되어 계절의 변화를 인지한 張謂의 <早梅>(卷197, 2022쪽)를 한 수 소개한다.

一樹寒梅白玉條, 한 그루 겨울 매화 백옥 같이 흰 가지,
迥臨村路傍溪橋. 시골길에서 떨어진 곳 시냇가 다리 옆에 있다네.
不知近水花先發, 물가 가까이에 매화가 이미 핀 줄 모르고,
疑是經春雪未銷. 봄이 왔지만 여태 눈이 녹지 않은 줄 알았네.

孟浩然의 <早梅>가 梅花를 따려는 젊은 여인네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치중하고 있다면, 장위의 이 시는 매화 그 자체의 상징성과 의미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 한겨울에 시인의 시선은 한적한 시골 시냇가 다리 옆에 위치한 매화나무로 향한다. 아마 그 매화나무는 白梅였던 모양이다. 이 때문에 시인은 새하얀 매화나무 가지위에 핀 흰 매화꽃을 가지 위에 쌓인 눈꽃으로 오인하였다. 그러나 자세히 보니 눈꽃으로 오인했던 것이 실은 새하얀 매화꽃이었다. 張謂의 <早梅>는 七言絶句 전편에 시골마을 한적한 시냇가 다리 옆에 서있는 매화나무에 봄이 도래했다는 계절의 변화를 느낀 詩人의 경이로운 감정이 잘 표현되어 있다. 한겨울에 봄소식을 전하는 梅花에 대한 경이로운 감정을 전달하는데 치중하여 梅花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僧 齊己의 <早梅>(卷843, 9528쪽)를 한 수 더 보도록 하자.

萬木凍欲折, 온갖 나무 얼어서 꺾이려 하는데,
孤根暖獨迴. 외로운 뿌리 홀로 따뜻한 온기 품어.
前村深雪裏, 앞마을의 깊은 눈 속에서,
昨夜一枝開. 간밤에 꽃 한 가지 피웠네.
風遞幽香去, 바람이 그윽한 향기 실어 나르니,
禽窺素艷來. 새가 아름다운 자태 훔쳐보러 왔네.
明年如應律, 내년에도 절기대로 상응할 것이니,

www.kci.go.kr

先發映春臺.　　망춘루에서 가장 먼저 피겠지.

제목은 같으나 詩의 주제의식이나 情感은 앞 장위의 詩와 자못 다르다. 隆冬의 계절에 꽃을 피우는 梅花의 孤高한 品格을 십분 찬미하면서 '孤根'(매화나무의 뿌리)의 詩語를 부각시켜 '萬木'(온갖 나무들)과 강열한 대비효과를 주고 있다. 가지가 부러질 정도로 깊이 쌓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모든 나무들은 한 겨울의 맹추위 앞에 숨을 죽이고 있다. 그런데 유독 매화나무만이 이러한 맹추위 속에서 꽃을 피운다. 매화나무의 뿌리가 따스하다는 표현은 실제로 우리의 눈에 볼 수는 없으나 詩人은 心眼으로 관찰하여 나무뿌리가 꽃을 피우기 위하여 왕성한 생장활동을 하고 있음을 감지한다. 그리하여 차가운 눈 속의 추위를 무릅쓰고 꽃을 피운 梅花의 아름다움을 좀 더 부각시킨다. 梅花의 그윽한 향기가 바람에 실려 전파되고 새초차도 매화의 아름다움을 훔쳐보려고 나타날 정도이다. 齊己는 추운 계절에 홀로 피어 봄을 알리는 梅花의 孤高한 품격에 유의하면서 자기 자신의 외로운 心情을 寒梅의 고고한 자태에 寄托하고 있다. 모든 나무가 숨죽여서 겨울의 추위에 신음할 때, 梅花만이 홀로 꽃을 피워 봄의 到來를 알리는 전령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齊己 자신도 언젠가는 자신의 포부를 이해해줄 知己들을 만나 꽃을 크게 피우길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古詩에서 唐詩에 이르기까지 자연과 계절의 변화는 시인들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소재였다. 매화는 겨울의 추위와 봄의 到來라는 두 가지 상징적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다. 당대 매화시에서 '早梅'라는 제목의 시가 특히 많이 지어진 것은 당대 시인들이 매화를 이미 봄의 전령사로 인식했기 때문이었다. 얼음같이 차가운 땅 밑에서 약동하고 있는 생명의 숨결을, 시인은 경이로운 감정으로 바라본다. '早梅'를 바라보는 시인은 봄의 도래를 감지하고 기쁨을 느끼지만 한 편으로 한 겨울에도 꽃을 피워 시인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었던 매화의 아름다움도 감지하였다. 唐代 初期의 매화시는 齊梁 時代의 매화시 전통을 계승하여 매화의 외형묘사를 활용하면서도 시인의 주관적 정서나 세계인식이 점차 융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www.kci.go.kr

2. 氷肌玉骨의 미녀

눈 내린 한 겨울에 새하얀 꽃잎이 활짝 핀 매화의 모습은 아마 보는 이의 마음속에 무한한 상상력과 감흥을 불러 일으켰을 것이다. 羅浮仙子니 瓊英이니 氷肌玉骨이니 하는 표현들은 寒梅의 孤高한 이미지를 언어로 표현한 것이다. 꽃이라는 속성을 女人의 모습에 비유할 경우, 梅花는 화려함과 고혹적인 모습을 가진 여인이 아니라 端雅하고 孤高한 氣品을 지닌 女人을 상징한다. 그러나 端雅하고 孤高한 氣品을 지닌 女人을 비유하는 매화의 이러한 상징성이 고대로부터 일관되게 지속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 특이한 경우이지만, 위진대의 吳均과 같은 시인은 겨울에 꽃을 피우는 매화의 속성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였다.

梅性本輕蕩, 매화의 성품은 본래 경박하고 음탕하여,
世人相陵賤. 세상 사람들은 서로 능멸하고 천시하네.
故作負霜花, 일부러 서리 맞으며 꽃을 피우는 것은,
欲使綺羅見. 곱고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는 거지.
但願深相知, 다만 깊이 알아주기를 원하지만,
千摧非所戀. 수없이 꺾어져도 불쌍해 할 바 아니라네.[10]

추운 겨울에 다른 꽃보다 먼저 꽃이 피는 매화를 경박하고 음탕하다고 표현하였다. 봄이 오기도 전에 다른 꽃보다 먼저 꽃을 피우는 매화를 질투와 시기의 여인으로 상정한 경우는 위진남북조대 오균의 이 <매화시(梅花詩)>가 유일한 듯하다. 다른 뭇 꽃들보다 먼저 꽃을 피워 곱고 아름답게 보임으로써 남들이 자기를 알아봐주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질투심과 시기심 많은 꽃이라고 시인은 폄하해버린 것이다. 가지가 꺾여도 불쌍해 할 동정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후에는 대부분의 시인들이 오균

10) 逯欽立 輯校, ≪先秦漢魏晉南北朝詩≫(上中下 3冊, 3版; 中華書局, 1995), 梁詩 卷11, 1751쪽.

www.kci.go.kr

의 시각과는 전혀 다른 각도로 매화를 바로보고 있으며, 이것이 매화의 일반적인 속성 내지는 상징으로 고착된 듯하다. 먼저 매화를 화장한 여인에 비유하고 있는 杜牧의 <매화(梅)>(卷522, 5971쪽)를 살펴보자.

輕盈照溪水, 경쾌한 자태 시냇물에 가득 비치니,
掩斂下瑤臺. 부끄러워 얼굴 가린 채 瑤臺에 내려온 듯하네.
妬雪聊相比, 눈을 시샘하여 잠시 견주어보느라,
欺春不逐來. 봄을 속여 쫓아오지 못하게 했네.
偶同佳客見, 우연하게 귀한 손님 만나게 되면,
似爲凍醪開. 술대접하기 위해 피는 것 같구나.
若在秦樓畔, 만약 秦樓 옆에서 피었다면,
堪爲弄玉媒. 弄玉을 위해 중매인 노릇했겠네.

杜牧의 이 梅花詩는 비록 全篇에 梅花의 形色·背景 등을 묘사한 어휘가 하나도 들어 있지 않지만 擬人法을 운용하여 매화의 아름다움을 잘 표현하고 있다. 시인은 매화의 아름다운 모습을 仙女의 玉容에 비유하였다. 시냇가에 비친 매화 나뭇가지가 너무나 아름다워 시인은 물에 비친 매화를 瑤臺에 내려온 선녀처럼 고결한 것으로 느끼고 있다. 시인은 흰 눈의 아름다움과 견주어 보는 매화꽃의 純白한 모습을 찬양하면서, 한편으로 매화가 봄이 오기 전에 꽃을 피운 것을 마치 봄을 속여 봄이 오지 못하도록 하고서 매화 스스로 꽃을 피운 듯 묘사하였다. 봄이 오기 전에 꽃이 모두 지기 때문에 봄이 매화꽃을 잔인하게 대하려 해도 이미 그렇게 할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秦穆公의 딸 弄玉과 神女 蕭史의 風流韻事를 典故로 인용하면서 매화의 고결한 자태를 선녀로 비유하였다.[11] 두목의 '梅'는 매화에 대한 외형적 묘사를 위주로 하지 않으면서도, 작가의 정감을 매화에 기탁하여 선녀같이 아름다운 여인으로 매화의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다.

11) 弄玉은 春秋時代 秦 穆公의 딸이다. 퉁소를 잘 부는 蕭史에게서 퉁소를 배워 鳳이 우는 소리를 내었고, 목공이 鳳臺를 지어 살게 하였다. 후에 두 사람은 함께 봉을 타고 날아가 신선이 되었다 한다.

www.kci.go.kr

韓愈의 <봄눈 사이에 핀 이른 매화(春雪映早梅)>(卷343, 3842쪽)는 백설과 매화를 조화롭게 대비하면서 氷肌玉骨의 매화를 그리고 있다.

梅將雪共春, 매화와 흰 눈은 함께 봄을 맞지만,
彩艷不相因. 그 아름다움은 서로 같지는 않네.
逐吹能爭密, 바람에 날려 온 흰 눈과 빽빽함을 다투며,
排枝巧妒新. 가지에 앉은 흰 눈은 교묘하게 질투하네.
誰令香滿座, 누가 향기를 온 자리에 가득하게 할 수 있나,
獨使淨無塵. 유독 눈만이 세상을 깨끗하게 할 뿐이네.
芳意饒呈瑞, 봄기운이 넘쳐 상서로움을 나타내는데,
寒光助照人. 눈의 찬 빛은 매화를 도와 사람을 비추네.
玲瓏開已遍, 영롱하게 핀 매화가 이미 고루 미쳤는데,
點綴坐來頻. 잠깐 사이 날려 온 백설이 장식해 주지 않는가.
那是俱疑似, 한데 어울린 품이 분간할 수 없으나,
須知兩逼眞. 모름지기 두 가지 모두 핍진함을 알겠네.
熒煌初亂眼, 번득이는 흰빛에 벌써 눈이 어지러워졌는데,
浩蕩忽迷神. 흰 눈이 뒤덮여 더욱 황홀하게 하네.
未許瓊華比, 옥으로 깎아 만든 꽃에야 비할 수 없지만,
從將玉樹親. 눈을 이고 있어 옥으로 만든 나무인 듯하네.
先期迎獻歲, 새해를 맞이한 것을 먼저 기약 하였더니,
更伴占茲晨. 서로 짝하여 이 좋은 아침을 맞았구나.
願得長輝映, 원컨대 매화와 눈은 오래토록 빛을 뿌리기를,
輕微敢自珍. 눈이 가볍게 날린다고 스스로 진기할 수 없으리.

이 시에서는 '봄눈 사이에 핀 이른 매화'라는 제목처럼 아름다운 여인을 상징하는 매화와 백설의 상호관계를 대비하여 양자를 더욱 두드러지게 묘사하였다. 서로 각자 독특한 특색이 있으면서도, 서로 상대를 비추면서 상대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른 매화와 봄눈이 함께 봄 경치를 차지하여 서로의 아름다움에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각자 특색을 지니고 있음을 표현하였다. 흰 눈이 더욱 맑아서 상서로움을 나타내고 눈의 맑고 차가운 광택이 매화를 도와, 매화와 눈은 서로 對比적으로 더욱 조화

www.kci.go.kr

를 이루고 있다. 영롱하고 투명한 광채가 가지에 가득한데 눈은 매화가지에 날아 떨어져 매화를 한층 더 꾸며준다. 매화와 눈의 輝映하게 광활한 빛은 사람에게 성대한 느낌을 주면서 갑자기 정신을 어지럽게 하고 황홀하게 한다. 매화에 내려앉은 진귀한 눈송이를 서로 병렬시켜, 흰 눈에 덮여 백옥 같은 매화와 눈의 친근함을 형상하였다. 시인은 옥으로 깎아 만든 꽃을 눈송이로 묘사하였고, 옥으로 만든 나무는 매화에 비유하였다. 이 시는 확실히 한유의 새롭고 기이한 시풍과 이전 사람들의 영매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롭고 기이한 기교를 사용하였다.

눈과 매화를 대비적으로 묘사함으로써 고고한 기품을 두드러지게 묘사한 또 다른 시로 元稹(779~831)의 <봄눈에 비친 일찍 핀 매화를 읊다(賦得春雪映早梅)>(卷409, 4542쪽)를 들 수 있다.

飛舞先春雪, 이른 봄의 백설이 휘날려,
因依上番梅. 이전 매화나무 가지에 앉는다.
一枝方漸秀, 한 꽃봉오리 곧 터지려 하는데,
六出已同開. 백설이 날아와 함께 피어나누나.
積素光逾密, 흰 눈이 쌓일수록 빛이 더욱 짙고,
眞花節暗催. 눈 속에 핀 매화는 더욱 아름다워진다.
摶風飄不散, 회오리바람에도 백설 날리지 않고,
見晛忽偏摧. 매화나무 갑자기 한쪽으로 기울어진다.
郢曲琴空奏, 거문고는 아름다운 선율 헛되이 울리고,
羌音笛自哀. 피리는 스스로 애처로운 곡조로구나.
今朝兩成詠, 오늘 아침 둘을 모두 읊조리니,
翻挾昔人才. 오히려 옛사람의 재주를 품었도다.

春雪·早梅는 얼음처럼 맑고 옥처럼 고결한 영혼이며,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의 精英이다. 시인은 풍부한 느낌으로 눈과 꽃을 번갈아 가면서 묘사하였는데, 이들은 서로 대비되면서도 묘하게 잘 어울리고 있다. 눈과 매화의 풍채 및 두 사물의 깊고 두터운 우정을 묘사하였다. 어지러이 날리는

www.kci.go.kr

춘설은 마치 더러운 세속으로 떨어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고 봉우리를 터뜨리려 하는 매화 위를 자기의 귀착점으로 삼은 듯하다. 투명한 눈꽃은 수려하고 빼어난 매화를 따르는데, 태양 아래서 서로 빛나고 바람 아래서 서로 의지하며 흩어지지 아니한다. 이것은 세밀하게 그려진 한 폭의 대자연의 雪梅圖로써 시인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이렇게 극단적인 아름다움을 세부적으로 묘사한 뒤에, 벅차오르는 감동으로 시를 읊지 않고는 가슴의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밖에 晩唐 시인 崔道融은 <매화(梅)>(卷714, 8207쪽)에서 "시냇가에 가지 가득 핀 겨울 매화, 밤이 되어 달빛 비치니 진한 향기 내뿜네. 달빛 아래 고요하여 상념은 끝이 없고, 응당 거문고와 술잔으로 함께 시름 풀어보리.(溪上寒梅初滿枝, 夜來霜月透芳菲. 淸光寂寞思無盡, 應待琴尊與解圍.)"라고 읊었는데, 매화와 달빛 이에다 백설의 조합만으로 시인은 고상하고 무한한 성취를 느끼고 있다. 시인은 이러한 운치를 더욱 확장하기 위해 거문고와 술을 떠올리는 것이다. 崔道融의 七言絶句는 매우 간결한 형식 속에 매화의 상징적 美感과 시인의 주관적 정서를 잘 조화시키고 있다.

또한 韓握(844~914?)은 梅花를 소재로 한 시를 세 편이나 썼는데, 그 중에서 의인법을 사용하여 아름다운 여인을 비유한 <매화(梅花)>(卷680, 7792쪽)에서 "매화는 봄빛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깊은 겨울 꽃을 활짝 피우네. 멀리 오랑캐 땅 달빛 아래 용피리 소리 들리는데, 제비 비녀 꽂고 한나라 궁녀 옷차림을 선보였네.……(梅花不肯傍春光, 自向深冬著艷陽. 龍笛遠吹胡地月, 燕釵初試漢宮妝.……)"라고 읊어, 매화를 아름다운 궁녀처럼 찬미하기도 하였다.

3. 그리움의 표상

梅花라고 하는 창작 소재가 가지는 특성으로 말미암아 唐代 梅花詩의 주요 내용은 梅花를 보고 느끼는 시인의 주관적 감정을 노래한 것이 대부분이다. 시인의 주관적 감정을 노래한 매화시들 중에는 가까운 사람들, 가

www.kci.go.kr

족(주로 형제)・친구・친지・동료, 그리고 고향에 대한 그리운 감정을 다루는 경우가 많고, 이때 매화는 서로간의 그리움을 연결해주는 매개물 또는 상징물로 작용하고 있다.

먼저 張九齡의 <왕사마의 경성에 있는 형제에게 매화를 꺾어 부치며 라는 시에 화답하다(和王司馬折梅寄京邑昆弟)>(卷48, 582쪽)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형제들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 있다.

離別念同嬉, 이별하면서 즐겁게 지내던 때를 생각하니,
芬榮欲共持. 화사한 매화꽃 함께 붙잡으려고 했지.
獨攀南國樹, 나 홀로 매화나무를 어루만지면서,
遙寄北風時. 멀리 북풍이 불던 때에 기탁해보네.
林惜迎春早, 나무들은 봄이 빠른 것을 안타까워하나,
花愁去日遲. 매화꽃은 하루가 더딘 것 걱정한다네.
還聞折梅處, 멀리서 듣네 매화가지 꺾어 보낸 곳에,
更有棣華詩. 또 형제 그리워하는 詩가 있었음을.

장구령은 형제를 지극히 생각하는 王司馬의 마음에 감동하여 이 시를 지어 唱和한 것으로 보인다. 형제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함께 놀던 매화나무 가지를 어루만지면서 자라던 옛 시절의 즐거운 추억을 회고한 것이다. 시에서 '折梅'를 소재로 다루기 시작한 것은 陸凱의 <범엽에게 드림(贈范曄)>이라는 시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12] 다만 陸凱는 친구인 范曄을 그리워하여 매화나무 가지를 보냈다고 하였지만, 이 시에서는 王司馬의 兄弟愛를 높이 사면서 作者 자신도 兄弟들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매화를 통해 표현하였다.

가까운 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느낌을 시로 표현하는 것은 唐詩에서 가

12) 婁國忠, ≪詠梅詩詞百首詳解≫, 西泠印社出版社, 2011, 8쪽. "매화나무 가지를 꺾다가 역부를 만나, 몇 가지 묶어 멀리 계신 그대에게 보냅니다. 강남땅엔 보낼 것이 별로 없기에, 애오라지 봄기운 담긴 매화 한 가지 보내네.(折梅逢驛使, 寄與嶺頭人. 江南無所有, 聊寄一枝春.)"라는 이 시는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는 명시이다.

www.kci.go.kr

장 흔히 접할 수 있는 시의 소재라고 하겠다. 李白의 <매호에 유람 가는 벗을 전송하며(送友人游梅湖)>(卷175, 1790쪽)에서는 매화가 친구간의 그리움을 연결하는 매개물이 된다.

送君游梅湖, 매호로 유람가는 그대를 전송하나니,
應見梅花發. 응당 매화 핀 모습 보게 되겠지.
有使寄我來, 심부름꾼이 나에게도 매화 보내면,
無令紅芳歇. 활짝 핀 꽃향기 사라지지 않게 하리.
暫行新林浦, 잠깐 新林의 포구에 가게 되면,
定醉金陵月. 반드시 金陵의 달 아래에서 취하리라.
莫惜一雁書, 편지 한 장 쓰는 수고 아끼지 말고,
音塵坐胡越. 胡越의 먼 지방에도 소식 전해주게.

친구를 그리워하는 이백의 심경이 잘 드러나 있다. 낭만적 기질의 이백은 친구가 梅湖로 떠나자마자 벌써 친구가 그리워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梅花를 감상하고 있을 친구로부터 매화 가지 하나를 받게 되면, 이를 즐기면서 친구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고자 하는 것이다. 친구에 대한 이런 깊은 감정은 매화를 매개물로 하여 그리움과 우정을 전달할 수 있으니, 매화는 곧 친구에 대한 애정과 서회의 상징이었다고 하겠다.

이백과 詩名을 나란히 한 大詩人 杜甫가 친구를 그리워하며 쓴 <배적의 '촉주 동정에 올라 손님을 전송하다가 일찍 핀 매화를 보고 나를 그리워하며 부쳐드리다'는 시에 화운하여(和裴迪登蜀州東亭送客逢早梅相憶見寄)>(卷226, 1436쪽)라는 시에서도 매화는 친구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상징으로 그려졌다.

東閣官梅動詩興, 동각 관아의 매화가 시흥 일으키니,
還如何遜在揚州. 마치 하손이 양주에서 시 지은 일과 같다네.
此時對雪遙相憶, 마침 눈 앞에서 멀리 있는 친구가 생각나니,
送客逢春可自由. 친구 전송하며 봄꽃 맞으시니 어이 자유롭겠는가.

www.kci.go.kr

幸不折來傷歲暮, 다행히 매화가지 보내어 歲暮의 마음 아프지 않게 하였으나,
若爲看去亂鄕愁. 만약에 매화가지 보았다면 고향 생각 어지럽게 났으리.
江邊一樹垂垂發, 강가의 한 그루 매화 점점 꽃피고 있으니,
朝夕催人自白頭. 아침저녁으로 사람을 재촉하여 흰머리 늘어나네.

故友 裴迪의 시를 보고서 何遜의 詠梅詩[13]를 바로 떠 올린 것은 하손이 자신의 불우를 느끼고 매화시를 지었듯이 두보 역시 자신의 불우에서 오는 외로운 심정 때문에 곧바로 이 시를 떠올린 듯하다. 이 시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何遜의 詠梅詩와 陸凱 <贈范曄> 詩가 唐代에 벌써 典故로 사용될 정도로 시인들이 기존의 매화시를 익숙하게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裴迪이 매화나무가지를 꺾어 보내지 않는 것을 도리어 두보의 건강을 염려하며 일부러 시만 보낸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 두 구절도 결국 陸凱의 시에 쓰인 표현을 반대로 뒤집어 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는 王世貞이 고금 詠梅詩의 으뜸이라고 평할 정도로 매화시의 특징이 응축된 시라고 할 수 있는데,[14] 매화는 단순한 영물의 대상이 아니라 친구를 그리워하는 그리움을 연결하는 매개물로, 덧없이 가는 세월에 대한 서글픔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상징물로 정착되었다.

당대 시인들은 형제나 친구 친지 등 가까운 이들을 추억하거나 그리워

13) 逯欽立 輯校, ≪先秦漢魏晉南北朝詩≫, 梁詩 卷9, 1699쪽. 何遜의 梅花詩 <일찍 핀 매화를 노래하다(詠早梅詩)>(이 시는 <양주의 법조로 있는데 매화가 한창 피어(揚州法曹梅花盛開)>라는 제목으로 된 판본도 있다)는 다음과 같다. “토원 수풀은 흐르는 세월의 표지인데, 그 중에 시절을 알리기로는 매화가 으뜸이라. 찬 서리 머금고 길가에 피어나고, 눈과 어우러져 추위 따라 피었는데, 가지는 각월관으로 기울고, 꽃은 능풍대를 에둘렀네. 아침나절 진황후의 장문궁 바라보며 눈물 뿌리고, 저녁에는 상여와 탁문군 생각하며 술잔 멈춘다. 분명 떨어질 줄 진작 알아서일까, 이른 봄을 좇아 피어났구나.(兎園標物序, 驚時最是梅. 銜霜當路發, 映雪擬寒開. 枝橫却月觀, 花繞凌風臺. 朝灑長門泣, 夕駐臨邛杯. 應知早飄落, 故逐上春來.)”

14) 仇兆鰲, ≪杜詩詳註≫(全3冊), 卷9, 漢京文化事業公司, 1984, 782쪽, “楊德主曰, …… 王元美以爲古今詠梅第一.”

www.kci.go.kr

할 때 매화의 상징성을 창작의 소재로 이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적지 않은 시인들이 梅花를 소재로 하여 가까운 사람들과의 이별・만남 등의 情懷를 표현한 바 있다. 交友의 感情을 표현한 柳宗元의 <때 이른 매화(早梅)>(卷353, 3952쪽)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를 그리워함에 매화가 매개가 되고 있다.

早梅發高樹, 이른 매화 높다란 나무에 피어,
迥映楚天碧. 멀리 초나라 땅 푸른 하늘과 서로 비추네.
朔吹飄夜香, 삭풍은 밤 매화 향을 실어 나르고,
繁霜滋曉白. 하얗게 내린 서리 새벽 여명에 꽃 더욱 밝네.
欲爲萬里贈, 만 리 떨어진 그대에게 전하고 싶으나,
杳杳山水隔. 아득히 산수 넘어 떨어져있다.
寒英坐銷落, 추위 속 꽃송이 끝내 시들어 떨어지면,
何用慰遠客. 무엇으로 먼 손님 위로하리오.

찬바람과 차가운 서리 속에서 일찍 핀 매화의 자태를 묘사하면서, 유배당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옛 친구를 그리워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자신의 고상한 풍격을 매화에 비유하였다. 늦은 저녁 북풍이 불어 매화의 맑은 향기 실려 오고, 새벽녘 짙은 서리는 매화의 고결함을 더해 준다. 시인의 주관적인 색채를 포괄하고 있는 매화는 시인의 표상과 마찬가지인데, 삭풍・서리・차가운 날씨 등 시인이 겪은 정치적 시련과 인생의 험난함을 상징한다. '朔吹' '飄香' '滋白' '繁霜' 등의 어휘를 사용하여 매화의 고결한 기질과 투명하고 밝은 살결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다. 이렇게 추운 겨울날 피어난 아름다운 매화를 보고, 시인은 멀리 떨어진 옛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매화의 성품을 통해 실패와 좌절을 겪은 친구들의 아픔을 위로하고자 하였다. 이른 봄의 매화 모습을 묘사하고 나서 북풍과 서리 속에서도 더욱 향기와 결백함을 드러내는 매화를 찬양하고, 역경에도 굽히지 않는 품성을 부각시키고 있는데, 이는 작가 성격의 반영이기도 하다. 한편으로 작가는 먼 곳으로 유배가 있는 정치적 동지들을 생각하며, 살아서 끝내 만나보기

www.kci.go.kr

힘든 그들의 운명을 걱정하여 시들어 떨어지는 매화 꽃잎을 보는 안타깝고도 아픈 심정을 기탁하고 있다.

王維의 <雜詩 三首>(卷128, 1304쪽) 중 둘째 수에 나타난 매화는 그리운 고향을 상징하고 있다.

君自故鄉來, 그대는 고향에서 오셨으니,
應知故鄉事. 고향의 일을 잘 아시겠군요.
來日綺窗前, 오시던 날 비단 창 앞에,
寒梅著花未. 매화가 꽃을 피웠던가요.

시인(혹은 주인공)이 고향에서 온 사람에게 고향 창밖에 있는 매화가 피었는가를 물어보는 것으로, 객지에 있는 사람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짙은 감정을 표현하였다. 고향에서 온 사람은 분명히 고향 사람들과 사정을 잘 안다는 긍정 하에, '故鄉'이라는 글자를 두 번이나 사용하여 주인공이 고향에 대해 알고 싶은 급한 감정을 드러내었다. 창 앞에 있는 매화는 주인공이 묻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담고 있다. 특별히 창 앞에 있는 그 매화가 피었는가를 묻는 것은 매화로 여러 가족과 집안사정을 대신한 것이다. 창 앞에 있는 매화는 시인의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뜻한다. 시 전체가 구어의 방식으로 구성되어 순박하고 담백하면서도 그윽한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吳融의 <여관의 매화(旅館梅花)>(卷685, 7875쪽)에서도 고향에 대한 깊은 그리움에 매화가 매개가 되고 있다.

淸香無以敵寒梅, 맑은 향기 겨울매화에 맞설만한 것 없으니,
可愛他鄉獨看來. 타향에서 홀로 보아도 사랑스럽구나.
爲憶故溪千萬樹, 고향 계곡의 수많은 매화 추억해보니,
幾年辜負雪中開. 어느 때나 눈 속에 핀 매화 저버리지 않으리.

간결하면서도 깊은 여운이 있는 매화시인데, 먼저 寒梅의 淸香을 먼저 찬미하고 있다. 바람에 실려 전달되는 매화의 暗香은 거의 모든 시인이 찬

www.kci.go.kr

미하는 매화시의 소재라 할 수 있다. 이어 시인은 매화의 아름답고 사랑스런 모습을 보면서, 고향에 피어있을 수많은 매화나무들을 상상한다. '千萬樹'는 과장된 표현이지만 시인이 그만큼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강조의 뜻으로 읽을 수 있겠다. 시인은 고향의 매화를 마주하지 못하고 나그네 신세로 떠돌고 있는 안타까운 심경을 깊이 있게 표현하였다.

매화시 중에는 특히 그리움을 기탁하는 시가 많은데, 시인들은 寒梅를 琓賞하면서 그리운 가족과 친지, 먼 곳에 유배가 있는 친구나 동료, 그리고 오매불망 잊지 못하는 고향을 그리워하였다. 이 때문에 당대 시인들은 가끔 매화를 소재로 시를 지으면서, 매화를 매개물로 삼아 그리운 이들을 그리워하였고, 이로 인해 매화는 그리운 이들이나 그리운 고향의 상징이 되었다.

4. 自我의 투영

한 겨울에 꽃을 피우는 매화의 특성 때문에 매화는 일찍부터 시인들에게 고결함과 고상함을 상징하는 꽃으로 인식되었다. 시인들이 매화시를 창작할 때는 여타의 영물시와 달리 매화에 특별한 감정을 담는 경우가 많았다. 추위를 두려워하지 않고 겨울에 꽃을 피우는 매화의 특성에 자신의 마음을 기탁하였는데, 이때 시속의 매화는 바로 작가 자신이었다.

먼저 張九齡의 <정원에 핀 매화를 읊음(庭梅詠)>(卷48, 592쪽)이란 시를 보자.

芳意何能早, 꽃피운 뜻 어찌 이리 빠른가,
孤榮亦自危. 외로이 꽃을 피웠으니 저절로 위태롭네.
更憐花蒂弱, 연약한 꼭지 더욱 사랑스러우니,
不受歲寒移, 한겨울 추위에도 그 뜻을 바꾸지 않는구나.
朝雪那相妬, 아침에 내리는 눈은 얼마나 시샘했으며,
陰風已屢吹. 차가운 바람 이미 여러 차례 불었네.
馨香雖尚爾, 짙은 향기 비록 그대들 숭상하지만,

www.kci.go.kr

飄蕩復誰知.　　바람에 흩날리고 나면 또 누가 아리요.

유명한 재상인 장구령은 대체로 순탄한 관료의 길을 달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으나, 그 자신은 官途를 힘든 길로 여겼던 듯하다. 시인이 庭梅를 보고 '한겨울 추위에도 그 뜻을 바꾸지 않는구나'라고 탄성을 지은 것은 자기 자신의 정치적 浮沈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매화가 눈보라의 침노를 당하고 차가운 겨울바람에 날리는 모습은 장구령으로 하여금 지난날의 정치적 風波를 연상하게끔 하였을 것이다. 이 때문에 장구령은 開元之治를 성립시킨 장본인 임에도 반대파의 공격 때문에 그 정치적 업적을 알아주는 이가 없는 현실에 대해, '바람에 흩날리고 나면 또 누가 아리요'라고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자신의 올바른 길을 바꾸지 않는 시인의 고상한 자아와 굳센 마음을 한겨울 추위에도 그 뜻을 바꾸지 않는 매화에 그대로 투영하였다.

晩唐詩人 李商隱은 장구령처럼 고위관료가 된 적이 없지만 牛僧孺와 李德裕의 정치적 대립에 휘말려 불우한 일생을 보냈다. 자신의 불우한 삶을 매화에 투영시킨 이상은의 <11월 중순 부풍의 경계에 이르러 매화를 보다(十一月中旬至扶風界見梅花)>(卷539, 6174쪽)라는 시이다.

匝路亭亭艷,　　길을 에둘러 우뚝 서 피어있는 매화,
非時裛裛香.　　철도 아닌데 향기가 짙구나.
素娥唯與月,　　素娥는 유독 달과 함께 할 뿐이고,
靑女不饒霜.　　靑女도 서리를 내려주기 어렵구나.
贈遠虛盈手,　　멀리 벗에게 두 손 가득 매화 보낼 수 없으니,
傷離適斷腸.　　이별의 슬픔을 그저 슬퍼할 따름이네.
爲誰成早秀,　　누구를 위해 일찍 꽃을 피웠는가,
不待作年芳.　　봄에 꽃 필 때를 기다리지 않고서.

扶風縣(현재의 陝西省 寶鷄市)을 지나가던 이상은은 계절이 11월로 아직 隆冬의 계절이 아닌데도 길옆에 피어있는 매화꽃을 보게 된다. '非時'

www.kci.go.kr

의 매화를 감상하게 된 이상은은 문득 자신의 신세를 떠올리게 되었다. '철도 아닌데 향기가 짙은' 매화를 본 순간, 이상은은 牛李黨爭의 갈등에 휘말려 평생을 불우하게 보냈던 자신의 신세를 떠올렸던 듯하다. 달빛은 원래 눈 속에서 핀 매화의 모습을 더 돋보이게 해 주는 존재이고, 서리나 눈은 새하얀 매화꽃을 더더욱 빛나게 해 주는 존재이다. 그러나 겨울이 끝날 무렵 매화가 피어야만 이런 멋진 경치와 어울려 梅花의 모습은 더욱더 빛이 나는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11월에 핀 매화는 자연의 風光과 어울리지 못하므로 매화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절기가 맞지 않으므로 멀리 있는 故友에게 그 가지를 꺾어 보내기도 곤란하다. '봄에 꽃 필 때를 기다리지 않고서'라고 탄성을 뱉은 것은 早梅에 대한 안타까움이기도 하지만, 실은 早熟의 天才였던 자기 자신에 대한 안타까움이 담겨 있는 말이기도 했던 것이다.

陸龜蒙과 皮日休 등도 '梅花'라는 상징을 자신들의 불우한 삶에 빗대어 自我를 그대로 매화에 투영하였다. 皮日休의 <여행길에 머물러 본 들에 핀 매화(行次野梅)>(卷613, 7070쪽)라는 시를 한 수 보기로 하자.

蔦拂蘿捎一樹梅,	누홍초와 여라에 감겨 있는 한 그루 매화나무,
玉妃無侶獨裴回.	선녀가 짝도 없이 배회하는 것 같도다.
好臨王母瑤池發,	응당 서왕모의 요지에서 피어나고,
合傍蕭家粉水開.	양나라 궁궐 화장수 옆에 피어남이 마땅하리.
共月已爲迷眼伴,	달과 함께 더불어 벌써 짝이 되었지만,
與春先作斷腸媒.	봄에 앞서 애간장 태우는 매파노릇을 하네.
不堪便向多情道,	다정한 이에게 감히 고백할 수 없는 것은,
萬片霜華雨損來.	서리 같은 꽃잎이 봄비에 온통 떨어지는 것.

皮日休는 진사시험에 급제하고도 立身의 뜻을 얻지 못해 당시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태도를 가졌는데, 피일휴의 懷才不遇한 심정은 早梅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 가득히 묻어난다. 작자는 우선 일찍 핀 매화나무에 누홍초・여라 등이 감겨 있는 황폐한 상황에 주목한다. 이 매

www.kci.go.kr

화가 귀족의 庭園이나 皇室에 있었다면, 덩굴식물이 마구 감겨 올라가는 상황은 상상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이 때문에 시인은 早梅가 있어야 할 곳인 西王母의 瑤池나 齊梁의 皇宮에 대해 노래하였다. 그리고 뭇 꽃이 피어날 때쯤이면 한 겨울에도 온통 새하얗게 빛나던 매화꽃은 봄바람과 봄비에 가을날의 낙엽처럼 온통 시들어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시인은 뜻을 얻지 못하여 세상이 잘못되는 것을 그저 보고만 있는 자신을 황량한 들판에 제철보다 훨씬 앞서 핀 梅花와 동일시한다. 피일휴는 매화의 운명에 대해 무한한 感傷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매화의 운명에서 자신의 운명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다정한 이에게 매화에 대한 소식을 알리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15)

羅隱의 五言絶句 <정월 초이렛날 新安길을 가는 중 매화를 보다(人日新安道中見梅花)>(卷665, 7617쪽)에서는 역시 시절을 잘못 만난 자신의 모습이 매화에 투영되어 있다.

長途酒醒臘春寒, 긴 여행길 술에서 깨어나니 섣달 추위 여전한데,
嫩蕊香英撲馬鞍. 예쁜 꽃술의 향기 말안장에도 가득하네.
不上壽陽公主面, 수양공주 얼굴위에도 오르지 못할 텐데,
憐君開得却無端. 까닭 없이 꽃피우는 그대 가련하구나.

15) 陸龜蒙 역시 피일휴의 이 시에 차운하여 친구에게 불우한 삶 그 자체를 悲感해 할 필요 없다는 격려의 뜻을 주었다. 陸龜蒙이 皮日休의 <行次野梅>에 次韻한 <피일휴의 '行次野梅'라는 시에 차운하여 받들어 화답하다(奉和襲美行次野梅次韻)>(卷624, 7175쪽)라는 시는 다음과 같다. "나는 듯이 노 저어 일찍 핀 매화 지나가니, 억지로 추위를 속이며 도리어 낮은 곳에서 노니는 듯하네. 바람은 예쁜 꽃을 애틋해 하며 향기를 실어주고, 달은 깊은 정 담아 예쁜 모습 두드러지게 하네. 양나라 궁궐의 미인은 어찌 제나라 황제 덕분이 아니라, 제나라 왕실이 바로 玉兒(潘淑妃)의 중매인이었네. 알지 못하겠네, 사령운이 이별의 아픔 깨려고, 물가에서 온갖 슬픔 더 보탠 일을.(飛檛參差拂早梅, 强欺寒色尙低徊. 風憐薄媚留香與, 月會深情借艷開. 梁殿得非蕭帝瑞, 齊宮應是玉兒媒. 不知謝客離腸醒, 臨水應添萬恨來.)" 육구몽은 피일휴의 시각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 역시 친구의 懷才不遇를 느끼고 있다. 이 때문에 答詩에서는 '물가에서 온갖 슬픔 더 보태지 말라'고 위로하는 것이다.

www.kci.go.kr

羅隱은 晩唐의 어지러운 시대에 태어나 靑雪의 꿈을 품고 여러 차례 과거에 응시했으나 결국 과거에 합격하지 못했고 이곳저곳의 幕府에서 하급 관리 생활을 거듭하였다. 비록 立身出世는 하지 못하였으나 누구보다도 뜨거운 세상에 대한 근심과 고민을 지니고 있었으며, 아마 그러했기에 시대를 만나지 못한 자신의 불우한 삶을 비관하여 이름을 隱('은일'의 뜻)이라고 고치기도 했을 것이다. 위의 詩는 新安지방으로 가는 여행길에서 추운 날 길가에 피어있는 梅花를 보고, 즉흥적으로 지은 詩인 듯하다. 긴 여행길에 지친 나그네는 술을 마시고 취한 채 길을 간다. 그러다가 잠에서 깨어나 살펴보니 섣달의 맹렬한 추위는 술로서도 이기기 어렵다. 그런데 길가에 핀 梅花에서는 은은한 향기가 말안장까지 전달된다. 詩人은 문득 혹심한 추위 속에서 핀 梅花를 보고서 자신의 신세를 상기해낸다. 南朝 宋武帝 때 壽陽公主의 잠자던 얼굴에 매화꽃이 떨어지면서 梅花粧이라는 화장법이 유행했다고 한다.16) 그러나 이 혹심한 겨울에 길가에 핀 梅花는 어느 누구도 찾아주는 이가 없다. 羅隱은 아무도 보아주지 않은 곳에 핀 梅花의 모습을 통해 시대를 잘못 만나 누구에게도 쓰여지지 못하는 자신의 신세를 투영하였던 것이다.

寒梅에서 시인 자신의 자아를 찾는 것은 당대 이전의 매화시에서는 보기 드물다. 당대 시인들은 出仕하여 국가를 위해 큰 포부를 달성하는 일 못지않게, 時俗과 뜻이 맞지 않을 때는 山水에 은거하여 사는 일을 고상하게 여겼다. 한겨울의 추위를 무릅쓰고 피어나는 寒梅의 독특한 생육적 특성은 이들 一郡의 詩人들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다. 이상은・육구몽・피일휴・나은 등 懷才不遇의 시인들은 한매의 생육적인 특성을 관찰하

16) ≪太平御覽≫ 卷970, 文淵閣欽定四庫全書 電子版, 上海人民出版社. 壽陽公主는 南朝 宋 武帝의 딸. 초이렛날 함장전 처마 밑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공주의 이마위로 매화가 떨어져 다섯 꽃잎의 자국을 만들었다. 공주가 그것을 닦아 씻어도 지워지지 않아 황후가 그것을 그대로 두었고 매화장이라고 불렸다.(宋書曰, 武帝女壽陽公主, 每日臥于含章檐下, 梅花落公主額上, 成五出之花, 拂之不去, 皇后留之.) 이후로부터 梅花妝이 유행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방하였다고 한다.

www.kci.go.kr

면서 추위와 고난을 이기고 꽃을 피우는 한매의 모습에서 時俗과 타협하지 못하는 자신들의 절조를 발견하게 되었다. 당대 매화시 이후, 매화가 점차 隱逸·孤節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은 이들 시인의 매화시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송대 林逋를 거치면서 매화에 隱士의 특성이 확고히 부여되었고, 송대 이학가들의 시가를 거치면서 고고하면서 강직한 품성의 군자라는 상징성이 정착된 듯하다.

Ⅳ. 結 論

당대의 매화시에 나타난 매화의 상징적 의미를 봄의 전령사, 氷肌玉骨의 미인, 그리움의 표상, 自我의 투영 등 네 가지 소절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봄의 전령사'라는 의미는 唐代 梅花詩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소재였는데, 매화가 겨울과 봄 사이에 피는 꽃임을 감한할 때 계절의 변화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가 많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氷肌玉骨의 미녀'에서 예시한 매화시에서는 눈 내린 한 겨울에 새하얀 꽃잎이 활짝 핀 매화의 모습을 氷肌玉骨의 孤高한 이미지로 묘사하였다. 백설, 달빛, 그리고 매화가 조화를 이룬 이미지는 보는 이의 마음속에 무한한 상상력과 감흥을 불러 일으켜, 이를 선녀나 미녀로 표현하였다. 꽃이라는 속성을 女人의 모습에 비유할 경우, 梅花는 화려함과 고혹적인 모습을 가진 여인이 아니라 端雅하고 孤高한 氣品을 지닌 女人을 상징하였다. '그리움의 표상'에서 다룬 매화시는 가까운 친구와의 贈答형식이 주로 많고, 이외에도 가족이나 동료 등 자신과 가까운 사람과 시를 주고받으며 지은 경우가 많다. 때로는 고향에 대한 깊은 그리움을 매화에 기탁하여 작품으로 표현하였다. '自我의 투영'에서는 매화와 시인 자신을 同一視하여 매화의 고결한 이미지를 자기 자신의 굳센 의지나 고결한 인격을 상징적으로 매화에 투영하기도 하고, 때로는 길가에 피어 있는 寒梅의 모습을 통해 時機를 만나지 못한 시인의 懷才不遇를 토로하기도 하였다.

www.kci.go.kr

‘梅花’가 한겨울의 추위 속에서 여타의 꽃보다 가장 먼저 핀다는 속성은 梅花로 하여금 독특한 상징성을 가지도록 하였다. 梅花는 대체로 冬至를 전후하여 꽃망울이 맺히게 되고, 심지어 한겨울에 꽃이 활짝 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매화는 봄이 곧 올 것이라는 節氣의 변화를 암시해주는 봄의 전령사를 상징하였다. 梅花는 美人의 孤高한 氣品을 상징하기도 하면서, 宋代에 이르러서는 매화의 이러한 孤高한 氣節은 世俗의 헛된 명예나 이익을 피해 山水에 숨어사는 隱士의 정신과 일맥상통하였다. 梅花의 孤高한 특성은 世人의 일반적인 가치관과 정반대의 면모를 보이고 있는 은사의 생활신조와 상당히 부합하는 면이 있다. 현대에까지 전해지는 매화의 여러 가지 상징성은 당대 매화시에서 대부분 구체화되고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다.

<參考文獻>

清聖租御製, ≪全唐詩≫, 宏業書局, 1982.

仇兆鰲, ≪杜詩詳註≫(全3冊), 漢京文化事業公司, 1984.

≪二十五史≫(全12冊), 上海古籍出版社, 1986.

董謙生, 吳學先, ≪中國歷代梅花詩選≫, 山東大學出版社, 1991.

逯欽立 輯校, ≪先秦漢魏晉南北朝詩≫(上中下 3冊), 3版; 中華書局, 1995.

文淵閣欽定四庫全書 電子版, 上海人民出版社, 1999.

程杰, ≪梅文化論叢≫, 中華書局, 2007.

王影, 蔣力餘, ≪中國歷代梅花詩抄≫, 海天出版社, 2008.

婁國忠, ≪詠梅詩詞百首詳解≫, 西泠印社出版社, 2011.

陳明華, <陸游梅花詩研究>, 檀國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91.

崔福順, <蘇東坡의 詠梅詩研究>, 梨花女子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93.

李秀珍, <唐・宋梅花詩 特徵研究>, 東國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99.

程杰, <梅花象徵生成的三大原因(上)>, ≪文學研究≫, 2001.

www.kci.go.kr

張九齡, <開鑿大庾嶺路序>, ≪曲江集≫ 卷17, 文淵閣欽定四庫全書 電子版, 上海人民出版社.
이해원, <歷代 詠梅詩詞에 나타난 梅花의 象徵意味硏究>, ≪中國學論叢≫, 2002.
盧垠靜, <南宋四大家 詠物詩硏究>, ≪中國語文學論集≫, 第39號, 2006.
이선옥, <梅花의 象徵과 梅花圖>, ≪호남문화연구≫, 제40집, 2007.
안봉, <中韓梅花詩의 比較硏究>, 선문대학교 대학원 碩士學位論文, 2009.
김영문 외 역, ≪문선역주≫(전10권), 소명출판, 2010.

<中文提要>

中国历代的文人都十分喜爱梅花所具有的独特象征意义。梅花不畏严寒，竟在孟冬时节绽放的形象，给予诗人们深刻的印象。在严寒中，先于百花盛开的特质，使梅花具有了与众不同的象征性。本文认为梅花的象征意义大致在唐代已经形成，并对唐代梅花诗中出现的象征性进行了分析。唐代梅花诗中出现的梅花的象征意义，大致分成'春的使者'、'冷美人'、'相思子'、'高风亮节的自我'等四个小节，并对其进行了考察。梅花多在冬至前后含苞待放，有时甚至在深冬盛开。所以梅花是春天的使者，预示着春天将至这种气节的变化。在雪花飘落的冬季盛开出洁白花瓣的梅花被描绘成冰肌玉骨的高傲的形象。白雪、月色和梅花的绝妙组合激发出观赏者内心无限的想象力与情怀，所以把梅花比喻成仙女或美人。用女人的姿态来形容花的特征时，梅花并不是华丽与妩媚的形象，而是具有端雅和孤傲气质的女人的象征。关于'相思子'的梅花诗多以与好友的赠答形式出现，除此之外，与家人或同事等关系亲近的人，为相互赠诗而作的情况十分常见。有时把对故乡的思念之情，寄托在梅花上，并通过作品来抒发。在'高风亮节的自我'上，梅花等同于诗人自身，其高洁的形象被赋予了诗人自身的坚强意志或高尚品格，这便是梅花的寓意。有时通过路边盛开的寒梅形象来抒发诗人怀才不遇的感慨。南北朝

www.kci.go.kr

时代，仅个别诗人以曲子形式吟唱的梅花，到了唐代，作为诗的素材被广泛传播，在宋代以后，梅花作为象征文人气质的代表性花卉的地位被确定。梅花的这种象征性，在唐代梅花诗中，大部分被具体化，并且扎根下来，一直保持原样，流传至今。

주제어 : 唐诗, 梅花, 梅花诗, 咏梅诗, 咏物诗, 象徵性

www.kci.go.kr

www.kci.go.kr